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설교 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설교 자료

아래 설교 예시를 미원주민선교주일 예배에 활용하세요. 본 자료에 여러분의 아이디어 몇 가지를 더해도 좋습니다. 함께 제공된 예배 자료, 헌금 전 이야기, 어린이 설교 자료, 어린이 주보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 난봄, 우리는 캐나다에서 발견된 200명 이상의 원주민 아이들의 유해가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집단 무덤에 관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미국 내 감리교인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을 포함한 기숙 학교들이 미원주민들의 언어와 문화를 파괴하고자 했던 충격적 일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 교단 또한 미원주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과 충격적 사건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왜 옛이야기를 거론합니까?” “왜 가만히 있는 배를 뒤흔드는 겁니까?” 혹시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깨트려 열고 정직하게 그것과 대면하기까지,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을뿐더러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절

예배 중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땅에 대한 선언으로 설교를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_____ 부족이 살고 가꾸어 온 곳입니다(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살았던 미원주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미원주민 부족 지도 참조: <https://native-land.ca/>).

그들의 존재는 이 지역에서 기억되고 우리 공동체의 역사에 함께 엮여 있습니다. 미원주민선교주일인 오늘 뿐만 아니라 또 매일 매일, 우리는 과거의 해악을 치유하고, 자각과 존중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며, 최초 미국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설교 자료

기에, 우리의 행위로 그 같은 해악을 끼친 후에 어떻게 생명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시정하고 그 영향을 직면하기까지 우리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미원주민 코커스가 총감독회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교회와 정부가 승인한 기숙 학교들에서, ‘미원주민을 없애고, 사람을 만들자’와 같은 모토와 함께 자행된 문화적 말살과 미원주민들로부터 그들의 문화, 땅, 언어를 빼앗고자 했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같은 역사적 사건은 미원주민 가정들을 사정없이 파괴했습니다. 약물 중독과 가정 폭력에서부터 자살과 정신병에 이르기까지, 자행된 해악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과 배상의 부족은 미원주민 사회를 세대에 걸쳐 파괴해 왔습니다.”

(https://www.nejnamc.org/uploads/1/1/7/8/117898543/naic_childrens_advocacy_letter_june_2021.pdf)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로마 제국의 현실을 폭로합니다. 억압을 일삼는 제국을 숭배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정치나 정부 권력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창조와 맺는 관계를 통해 발견됩니다.

미원주민들이 당한 학살을 생각하고 몇 주 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학살된 성금요일을 지키면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된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있습니까?

“...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요한계시록 5:11-12

우리는 보좌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계

시록 5:11-12).

우리의 구원은 헛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뜻깊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회개하고 변화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201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미원주민들과, 그들의 언어, 문화, 교회와 세상을 위한 그들의



설교 자료

은사의 신성함”을 인정하며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연합 감리교회 모든 가족의 소망의 원천이며 자양분인 미원주민 가족들의 사역을 기뻐합니다. 오클라호마인디언선교연회의 총무인 데이비드 윌슨 목사는 미원주민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인종차별과 싸우고,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의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미원주민들은 180년 이상 감리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린양이신 예수님께 복과 영광을 돌려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예물을 통해 미원주민 사역을 후원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해악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예물은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연회의 구제 사역을 후원하며, 미원주민 목회자, 교회, 신학생들을 준비시키고 힘을 실어주어 그들이 총명한 문화와 전통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가능케 합니다.

(소속 연회의 미원주민 사역에 관한 예시를 소개하세요) 1841년에 세워진 뉴저지주 페어필드 타운십의 부족 교회인 성요한 연합감리교회가 그 예입니다. 미원주민선교주일 특별 헌금은 이 교회에 장학금과 교회 및 지역사회 지도력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지역에서 제작된 교재를 통해 문화적 영적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했던 여름성경학교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후원하기도 했으며, 노인들을 위한 문화 교육 모임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뉴저지의 다른 교회들과 맺은 관계는 더 큰 이해와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창조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온 땅이 기쁨으로 화답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요한계시록 5:13).

알렐루야! 아멘.

